



오늘은 꽃비 내리는 날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참가한 사부대중이 5월11일 종각 사거리에서 진행되는 회향한마당에 참가해 축제의 한마당을 즐겼다. 정유탁·여현아 씨의 사회로 진행된 회향한마당에서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설법 때 내리는 아름다운 꽃비를 맞으며 강강술래, 대중율동 등 신명나는 대중놀이로 하나가 됐다. 박재완 기자

산사서 마음 달래는 청소년 늘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 청소년 급증

한국 불교의 전통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이제는 학업 경쟁과 사회 병폐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치유 공간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 이하 문화사업단)이 집계한 템플스테이 참가자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12년 템플스테이 사찰 연인원은 41만 9000여 명으로 2011년에 비해 14.3%가 줄었지만 10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참가율은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템플스테이를 찾은 청소년은 29,258명으로 2011년 17,226명보다 크게 늘었다. 학교 교류를 이유로 참가한 인원도 2011년 7,509명에서 2012년 9,629명으로 28%가 증가했다. 직업군 중 학생(대학생 제외) 참가는 2012년 27,731명으로 2011년 대비 87%가 급증했다.

올해 연인원을 연령대 별로 분석한 결과 10대가 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 50대가 18%, 20대가 15%로 뒤를 이었다. 직업군에 있어서도 학생 참가가 34%에 달했으며, 회사원이 20%, 주부는 18% 등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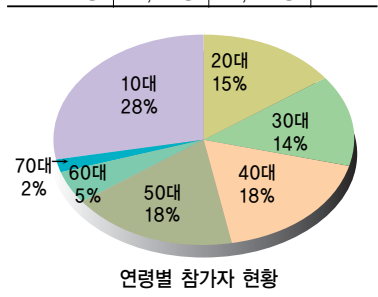
최근 템플스테이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힐링의 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경찰서와 템플스테이 사찰 간의 업무협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다.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지난 3월 14일 양천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내 비행청소년 선도와 범죄 피해자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지운)도 지난해 5월 3일 흥성경찰서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과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해 경찰서, 서귀포 경찰서, 인천 동부교육청들은 정기적으로 학교

항목	2012년	2011년	증감
연령-10대	29,258명	17,226명	70%
정보습득-학교교류	9,629명	7,509명	28%
직업-학생	27,731명	14,858명	87%



- 전체 연인원 감소에도 10대 참가자만 70% 증가
- 학교 폭력·중독 치유위한 관계기관 협약 이어져
- 사회 공헌기관 면모 '우뚱'

폭력 예방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이미 템플스테이는 구미 도리사(주지 묘장)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다. 도리사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정책제안 공모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당시 공모전 우수사례로는 학교 30개교, 일반단체 10곳이 선정됐으며, 종교단체 유일하게 구미 도리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런 노력들이 지친 청소년들을 템플스테이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

이에 대해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가족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및 청소년 유치를 위한 교육청 연계사업을 통해 청소년 참가자 확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템플스테이가 학교폭력,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등에 시달리는 중고교생들의 치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신규 총림 방장 추천 잇달아

동화사-진제 스님, 쌍계사-고산 스님 추천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총림 방장 스님의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성문 스님)는 5월 2일 산중총회를 열어 총림 초대방장에 진제 스님을 추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진제 스님은 이날 "산승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부처님의 심법을 생활 속에서 수행해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두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성조)는 5월 7일 경내 설선당에서 방장 후보 추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조계종 전계대회상 고산 스님을 쌍계총림 초대방장으로 추천할 것을



진제 스님 고산 스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쌍계사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69명 중 38명이 참석했다.

진제 스님과 고산 스님은 조계종 중앙총회의 추대 결정 이후 각각 총림 방장으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종일 기자

"아기 부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웃종교,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 연이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웃종교들의 축하 방문과 메시지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NCK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는 5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봉축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불교계가 매년 성탄절을 축하해주는 것이나 오늘날이 기독교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해주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목사는 "불교가 포용력이 좋아서 작년 연말 조계사에서 트리점등식을 하는 등 종교간 화합을 위

해 많은 일들을 해준다"며 "연등회에 개신교도 참석해 종교를 떠난 축제일로 삼아야겠다. 체험을 중시하는 서양 교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 불교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5월 10일 경북 김천 직지사(주지 흥선)를 찾아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가 발표한 경축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대주교는 설법전에 모인 경내 대중 100여 명에게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부처님오신날 경축 메시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총림법 개정위한 중앙총회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 연석회의... 6월 25일 개최 결의

총림법 개정과 방장 추대 등의 안건을 다루는 조계종 중앙총회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향적)는 5월 9일 제7차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제194회 임시회를 오는 6월 25일부터 5일간 회기로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6월 총회에서는 종헌 개정안과 총림법 개정안, 방장 추대의 건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총림법 개정을 놓고 이견 차를 보인 선원 수좌들과의 합의 도어는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

졌다. 총회위원장 향적 스님을 비롯한 총회위원 9명과 수좌 대표 스님 20여 명이 5월 8일 봉암사에서 총림법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양측은 논란이 됐던 방장 자격요건은 '20년간 이상 성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본사주지 선출은 임회가 복수 추천하면 방장이 지명하되 1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한편, 중앙총회는 개최 전날인 6월 24일 오후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초청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위법 인정

행정법원 의견서 내내...3차 변론에 영향 예상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의 도로 점용은 위법행위이며 사랑의교회 재건 축 문제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황일근 서초구위원은 "서초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지하 도로 점용허가 무효소송'과 관련, 전문위원들은 의견서에서 "도로 장기 점용은 위법행위"라며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건립함으로써 도로 지하를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사랑의 교회 주민소송 3차 변론일은 5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며 이번 의견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숙 기자

탑으로 나뉜 '영원한 법등'

대행 선사 1주기 추모 다례제 및 부도탑 제작

A 20 · 21